

‘특허심판 더 편리하게’ 특허심판원, 변리사 현장 목소리 듣는다

- 특허청 특허심판원, 대전지역 변리사와 간담회 개최(12.4) -

특허청(청장 김완기) 특허심판원은 12. 4.(수) 14시 30분 대전상공회의소(대전시 서구)에서 심판제도 개선을 위한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대한변리사회(회장 김두규) 소속 대전지역 변리사들과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.

간담회는 특허심판원장과 대한변리사회장, 대전지역 변리사 등 80여 명이 참석한다. 특허심판원과 대한변리사회가 논의('24.11.19)한 상호소통 및 협력강화 방안의 하나로, 특허심판 제도와 정책에 대해 지역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.

이번 간담회를 통해 고객의 관점에서 바라본 바람직한 심판정책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, 최근 심판제도 변경사항과 무권리자 출원*(모인출원)에 대한 심판실무 쟁점도 공유할 예정이다.

* 발명자 또는 고안자가 아닌 자로서 특허(실용신안)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인이 아닌 자가 한 특허(실용신안) 출원

서울수 특허심판원장은 “고객중심의 심판제도 개선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현장 목소리를 듣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”면서 “앞으로도 고객의 관점에서 편리하고 믿을 수 있는 심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대한변리사회와 소통하며 협력하겠다”고 밝혔다.

※ 붙임: 2024 특허청-대한변리사회 간담회 개최 계획

※ 사진은 행사 후 배포

담당 부서	특허심판원 심판정책과	책임자	과 장	이진욱 (042-481-5879)
		담당자	서기관	한중섭 (042-481-5917)

< 2024.12.심판정책과>

1 추진 취지

- 심판분야 주요고객이며 지재권 분야 전문가인 변리사회와 협력 강화

2 교류회 개요

- (일 시) '24. 12. 4.(수), 오후 2시30분
- (장 소) 대전상공회의소 2층 대회의실
- (참석자)
 - 변리사회 : 대한변리사회 회장(김두규 회장), 대전지역 변리사 등 80여명
 - 특허심판원 : 특허심판원장, 심판정책과 이진욱 과장, 한중섭 서기관
- (토의 안건)
 - 심판청구 및 처리 현황, 무효심판에서의 인용율 변화 추이 및 등록된 특허의 권리 보호 강화 방안(무효심결 예고제, 심판-조정연계제도 활성화 등) 등 공유
 - 심판품질제고·심판업무개선 사항, 심판 처리기간 등 심판원 주요 추진 사항에 대해 특허심판 대리인으로부터 현장 목소리 청취
- (법·제도 개선사항 및 심판쟁점 발표)
 - 심판참고인 제도, 디지털 심판시스템 도입 등 최근 심판 법제도 개선사항 소개, '모인출원' 관련 심판에서의 검토항목 및 판단방법 발표

3 세부 일정

시 간	내 용	비 고
14:30 ~ 14:40	■ 축사 및 사진촬영	심판원장
14:40 ~ 16:30	■ 토의 안건 제시 및 토론 ■ (발표) 최근 심판 법제도 개선사항 ■ (발표) '모인출원' 관련 심판에서의 검토항목 및 판단방법	한중섭 오석환
16:30 ~	■ 폐회	